

“성행위 결정권은 자신에게, 행위 뒤의 결과는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글_김성애 · 중앙여고 교사

현대의 청소년들은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 지내고 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둘러싸여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 성은 금기 영역이라기 보다는 탐구해야 할 영역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 있다. 만화와 드라마 또는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사랑은 곧 육체적 접촉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고등학교에까지 와 있다. 그렇다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납득할 만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냥 “안돼”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청소년들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부모의 말을 듣자니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고, 청년문화에 쉽게 편승하자니 뭔가 미심쩍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교사도 일단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해주면서 교육에 임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성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혼전성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의 목표가 결혼을 한 번만 잘 하는 것인 사람은 성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하지만 두세 번 정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혼전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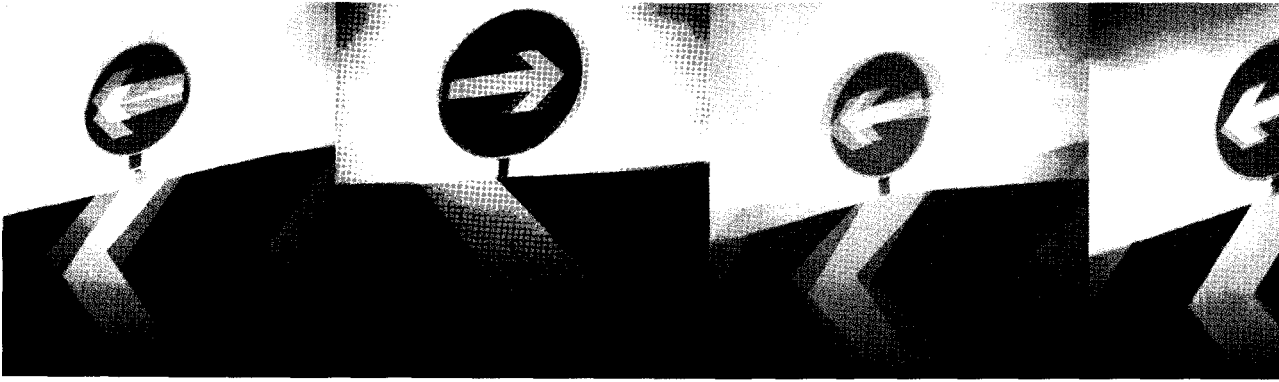
먼저 혼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자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도록 돕는다. 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로 성관계를 맺어 본 적이 전혀 없으며, 결혼할 때까지는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는 성관계를 맺어 본 적이 전혀 없으나, 혼전 성교에 대하여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세 번째로는 혼전 성교의 경험이 있으며 그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로는 혼전 성교의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그것이 한때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할 때까지는 다시는 어느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지 않을 생각이다.

첫 번째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가치기준이라면 적극지지하고 좋은 것이라 이야기 해준다. 하지만 부모에게서 강제로 받은 경우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지 바꾸어 버릴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하도록 한다.

가장 많은 경우가 두 번째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치기준보다는 대중매체나 친구들에 따르는 가치기준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도록 해준다.

세 번째 영역은 자기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므로 아무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여



어떤 학생들은 '피임을 배운다는 것은 성행위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서 따지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 피임의 목적은 "가능한 한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르친다. 낙태하는 것보다 피임을 하는 것이, 피임을 하기보다는 성행위를 안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기고 쾌락위주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성적 쾌락 이전에 정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신의 내면적인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울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낮을수록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면 속의 자신을 돌보도록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준다.

네 번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누구든지 예전에 어떠했는지에 연연하는 것보다

현재의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 해준다.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도 자신에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상 있으며 의무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번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판단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전성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도록 돕는다. 그것은 배우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낙태보다는 피임, 피임보다는 성행위를 안 하는 게 좋아

혼전에 섹스를 찾아 헤매면 헤멜수록 결혼 후 섹스에 대한 흥분은 줄어들게 된다. 규칙위반만이 섹스를 흥분하게 하기 때문에 결혼 후 금지된 영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혼할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혼전에 임신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 내내 꼭지가 걸리게 된다. 무슨 말이나 하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생기면 사랑해서 결혼했나기보다는 임신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임도 철저하게 가르친다. 어떤 학생들은 '피임을 배운다는 것은 성행위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서 따지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 피임의 목적은 "가능한 한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르친다. 낙태하는 것보다 피임을 하는 것이, 피임을 하기보다는 성행위를 안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행위를 자기가 선택하고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임신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므로 피임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